

10장 벤야민과 언어철학 3

◆1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미메시스에 대하여

미메시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미메시스는 사실 아도르노(1903~1969)한테도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고, 벤야민은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 쓴 그 글이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글 2개 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보게 되면 이제 『유사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메시스적 능력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 거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담겨 있는 글이라서 그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미메시스(mimesis)라고 하는 말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미메시스의 역사도 있을 만큼 미메시스는 회랍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소위 모던과 그리고 포스터모던 혹은 후기 구조주의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에서 그렇게 강력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바로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나 예컨대 테리다 같은 사람의 그런 독서법 같은 것도 사실은 미메시스적인 독서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도르노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위 밀착해가지고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번역을 하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객체를 닮으려고 하는 객체와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벤야민은 미메시스라는 말보다 유사성(Similarity)이다, 유사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메시스의 전제는 뭐냐 하면 주객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언어타락 이후로 바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었을 때 그 분리된 관계를 바로 소통 관계로 복원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태도를 사실은 미메시스적인 태도라고 크게 범주를 지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소위 분리되기 이전의 것이 있고, 그리고 분리된 이후의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에서 얘기가 되죠.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나 이런 데서 얘기될 수 있는 데서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문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분리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런 기원적 요소, 아니면 자연적 측면 이런 것들 자체를 바로 분리된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 자체가 이분법 자체가 문제시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법 자체가 문제시됨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특별한 소통행위인 그런 그 미메시스 자체의 허구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예술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다.

▲ 예술론에서의 미메시스

예술론에서 특히 그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연미이고, 그러나 그 자연미가 바로 예술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미라고 하는 것과 분리가 되면서 그 예술의 행위가 규정되고, 그 행위가 다시 자연미를 복원하려고 할 때 그 가능성의 이름으로 미메시스적 그런 행위,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죠.

미메시스는 모방이지만 단순히 일방적 그 A가 B를 닮으려고 하는 그것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혹은 사실 미메시스 개념 안에는 이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메시스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닮으려고 하면서 그 대상과 동일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미메시스적인 그런 논리를 알 수 있죠.

아이가 엄마이든 아빠이든 계속 닮으려고 하지만 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아빠나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엄마와 아빠와 특수성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미메시스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하자면 한 아이가 바로 성숙한 한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모방이 창조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모방이라는 이름 아래 바로 창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예술미가 자연미를 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미가 자연미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다름 아닌 진정한 예술미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자연미에 모방 과정을 거쳐서 된다, 그래서 칸트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게 이제 계몽주의 근대성에 아주 그 오만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예술은 자연을 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자연이 예술을 닮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인간주의적인 아주 극렬한 계몽적 일종의 오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자연을 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자연이 예술을 닮는다. 이건 맞는 얘기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 자연으로서의 신체의 코드화

우리의 그런 특히 신체 문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체의 욕망이나 아니면 신체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흔들고,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까? 아니면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체는 자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 같은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광고가 태어난 이래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게 뭐니까?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반복하는 거.

그게 이효리든 누구든 시간에 좌우지간. 흔들어라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좌우지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광고의 그 몽매성, 그거 참 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숙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기필코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광고의 본능에 있는데 죽어도 크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또 반면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수하게 변주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 다양한,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주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일종의 가상들, 그것도 참 신기한 그런 현상이고요, 제가 볼 때. 광고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광고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광고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그런 그 신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상품을 팔려고 하면서 문화를 팔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연을 저게 뭐야, 뭐라 그럴까요? 상징으로 제공을 하죠. 그게 바로 다른 아닌 Sexuality의 문제라든가 신체의 문제인데, 끊임없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어떤 욕망에 어떤 충족을 얻으면 묘한 현상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연이 그 상품이라고 하는 이름에 뭍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화적 욕망에 의해서 막 떨려요. 그렇죠? 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우리에게 지금 Body라고 하는 게 있냐? 우리에게 진짜 Body라고 하는 게 있냐? 그런 그 여자들의 성형문제로 뭐 그런 식으로 따져 볼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우리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신체라고 하는 건 참 순박한 것이어서 정말 천진스럽고, 그런 것이어서 정말 자극이 오게 되면 그게 허구인지 마치 그 한여름이나 나는 수박이 봄에도 막 나오고, 빨갭게 익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만 주면 그게 바로 우리 신체예요. 그게 신체입니다. 그런데 신체라는 게 또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동반사적인 메커니즘의 어떤 그런 장소일수도 있지만 또 신체 속에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또 폭파시키는 또 다른 무엇이 있죠.

그게 참 우리로 하여금 신체를 끊임없이 응시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신체는 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코드입니다. 코드. 코드인데 코드일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코드가 되면 될수록 탈코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위험한 사람은 생각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각 안 하는 사람 잘 관리하면 말 잘 듣지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 신체가 바로 철저하게 코드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철저하게 코드화 됐기 때문에 탈코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논리도 우리가 사실 그냥 뭐 그런 뭐 너무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위생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진지한 그런 비판가들은 그런 광고현상 같은 걸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고, 시장을 부추기는 그런 가짜 상품들을 진짜 상품처럼 제시하는 그런 걸로 비판만 합니다만 벤야민 식으로 우리가 응시하게 되면 그 안에 바로 적에게 힘이 있습니다.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광고 속

에 광고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뇌관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걸 볼 줄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문화비평인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게... 엉뚱하게 미국은 이렇다, 무슨 불란서는 이렇다, 뭐 맨날 그따위 소리만 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을 폭파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뇌관을 찾아내는 그런 시선이 있냐, 없냐? 그게 문화비평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 벤야민이 말하는 미메시스

어쨌든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벤야민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아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언어 타락사가 다른 아닌 그 아담의 언어가 타락해 가는 과정이 다시 말해서 다른 측면에서 아담의 언어가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 역추적하고, 역독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텍스트를 읽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읽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미메시스적인 행위하고, 벤야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에게 미메시스론이 다른 아닌 그 언어론과 아주 그 상관적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벤야민의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그런 능력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 왜 다른 것을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가? 그게 아주 자연의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하나의 그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들어 있는 본능인데 그 본능을 벤야민은 인간학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야민은 그걸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그거를 ability,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능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벤야민이 아담의 언어를 바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다른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선물이다, 라는 식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능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은 유사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본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본능이 인간에게로 건너오게 되면 본능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왜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비슷한 것으로 바로 변화려고 하고, 비슷한 것으로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사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로 가득한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아도르노의 전문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보존 본능 때문이다. 자기보존 본능

이다.

뭐, 말을 힘들게 해서 그렇지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항상 위협에 시달립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벗은 것인가? 우린 그거를 좋게 얘기해서 먹이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떠한 것도 바로 외부로부터 자기보존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에 노출돼 있는 게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죠.

거기서 인간도 자유롭지 않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보존을 뭐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살려 놓으려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보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자기보호 본능이 바로 미메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바로 이 생존투쟁에서 나온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가 다른 것과 유사하게 되지 않으면 바로 해소될 수 없는 어떤 위협이 바로 내가 다른 것과 유사하게 되면 자기위장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추벌레 같은 것들이 배춧잎에 똑같은 색깔로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모든 그런 예를 들면 무슨 저기 뭐야, 자기보호 장치를 갖고 새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이중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새 보면 참 뭐, 아, 철새가 날아가네. 참 멜랑콜리에 젖기도 하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내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배춧잎에 붙어 있는 그런 배추벌레 보면 아, 색깔 예쁘다, 그러고 또 호랑나비도 보게 되면 아, 색깔이 어쨌면 오묘할까? 이러지만 다 뭐니까?

그게.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호하려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자연에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보존 본능과 관련돼 있다. 그걸 통해가지고 정말 자연 속에서 문명 없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 원시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내일 정말, 우리도 뭐 요즘 사회가 다시 정글이 되어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돼 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안녕이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을 지 어떻게 또 우연히 동굴 깊숙이 살았는데 뱀이 들어와서 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호랑이가 들어와서 침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살려고... 그런데 동물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자연 논리 속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

▲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나이팅게일이라고 우리식으로 참새인데 참새가 노래 부르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팅게일의 참새 소리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가곡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도르노가 그걸 미학이론에서 공격하면서 그 새소리 속에는 위협 때문에 질려있는 비명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메커니즘화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현대 음악에서 나타나고 있는 dissonant,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위기성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위 하모니라고 하는 것을 아도르노는 음악철학을 음악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위 서구음악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소위 하모니라고 하는 것, 3화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통적인 Composition의 하모니의 그런 그 테크닉, 바로 이것을 아도르노가 공격을 하면서 이 소위 하모니라고 하는 것의 이 거짓됨, 이것은 바로 그것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 낸 게 그 원래 자연세계에 있는 엄청난 그런 위협에서 오고 있는 그런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불안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동경, 그 동경의 어떤 산물인데 이제는 그 서양음악사에서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는 잊어버리고, 소위 하모니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하모니가 아니면 음악이 아닌 것처럼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음악들이 감금당한 채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식이 자유를 억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 우리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에서 form의 문제예요. 형식의 문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예술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바로 New Music, 소위 쇤베르크를 중심으로 태어나고 있는 쇤베르크가 하모니가 아니라 consonance가 아니라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 dissonance라고 하는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음악에 전면으로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음악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아도르노는 dissonance가 바로 그 하모니의 본래 의도를 되살리는 어떤 징후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지니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예 대한 깊고 깊은 그런 망각의 그런 충격충을 깨우는 그런 하나의 소위 소음으로서의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예술이나 현대음악이나 소위 현대성을 진지하게 통찰하고 그것을 재현해 내려고 하는 예술들은 문학이든 그리고 그것이 음악이든 아니면 그것이 회화이든 언제나 바로 찌그러져 있다. 형식 파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식 파괴가 바로 우리에게 쇼크로 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 예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쇼크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벤야민의 미메시스-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특별한 능력

그게 이제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미학이론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벤야민의 경우에도 바로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행위에 인간학적인 측면은 다름 아닌 자기보존본능이라고 하는 자연 상태와의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벤야민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세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연 세계 속에서는 미메시스가 본능이지만, 어떤 메커니즘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뭘니까? 자기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야민이 아주 좋아하는 말로 하면 자기변신능력이 없는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아요. 발전이 없죠.

동물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곤충들 그런 것들이요. 항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 반복, 이 반복이 바로 본능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인간이 인간에게 이 본능이 바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변신의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시스템으로부터 반복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걸로 건너가는 능력이 그 기능이 바로 인간에게 있고, 그랬을 때 바로 이 미메시스, 유사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인간학적 요소는 단순히 그런 본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며, 그리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벤야민이 인간에게서 미메시스적인 것이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미메시스, 즉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 이게 벤야민에게는 미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과 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특별한 능력, 그게 바로 벤야민에게는 미메시스인데 바로 이 미메시스를 우리가 인간의 행동 영역이나 특히 문명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 어린 아이의 유희 속에서 발견되는 미메시스적 능력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아이를 보자는 거죠. 어린 아이를 보자. 어린 아이들의 유희를 벤야민이 바로 어린이의 유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랬습니다. 장난감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를 위한 장난감에 대해서도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아주 무한한 그런 유희 가능성을 일찌감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르주아 사회의 하나의 전략, 그게 바로 장난감이다,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난감을 쥐가지고, 그 놀이를 메커니즘화 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쓴 글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장난감 사다주지만 그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회의 그 소위 검열 시스템이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웬만한 통찰력 갖고는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그 파악이 안 되는 채로 싸움질을 하게 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가 지금 이명박과 노무현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막 비판하다보니까 이명박을 만들어 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비판이라는 게 이 사회는 비판이라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적대 세력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면서 자기를 강화시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예를 벤야민도 통찰을 해서 바로 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무한한 그 유희 가능성을 메커니즘화 시키고, 그리고 사회화 시키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아주 그 신랄하게 접근했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의 유희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벤야민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린 아이의 유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유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는 유희 본능의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아닌 이 미메시스적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유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미메시스의 능력, 인간적 미메시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바로 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유희에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과 자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애들의 유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노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말이다, 그러면 말 타고 막 갑니다. 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말하고 비슷하게 되는 그게 바로 유희예요. 그리고 나는 나무다. 그러고서는 서 있고, 예컨대. 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비행기다, 하고 비행기 해서 막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유희는 항상 뭐니까? 신체를 대상과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과정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유희다. 이거죠. 반면에 장난감은 바로 이 비슷하게 만드는 능력을 바로 단순히 도구화시키는 그리고 메커니즘화 하는 어떤 룰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으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통제기능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미메시스적 능력-지각적 유사성과 비지각적 유사성

그러니까 벤야민이 볼 때 그러나 유사, 이 미메시스적 능력, 유사성의 능력에는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아이들의 유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각적 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다.

말이 힘들어서 그렇지 지각적, perception 할 수 있다는... 뭐니까? 그거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신체를 가지고 비행기다, 그러면 그 비행기의 형태하고 아이들의 몸이 만들어낸 그 몸의 형태하

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각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각적 유사성이라는 게 우리는 아이들의 유희능력 속에서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유사성의 그런 능력은 전부 이런 식으로 바로 신체를 통한 것이고, 그리고 신체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지각적 유사성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그런 유사성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각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유사성의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비지각적 유사성을 만들어 낸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이게 정신적 유사성이죠. 그렇죠? 정신적 유사성이다. 비지각적, 그래서 벤야민이 독서는 썩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거다, 라고 얘길 했을 때 바로 이 지점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그런 읽기의 능력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각적인 유사성을 알아보는 능력도 있지만 바로 비지각적인 유사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벤야민의 독서론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썩여지지 않은 것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되고, 바로 그게 미메시스적 독서능력에 그런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각적인 바로 그 능력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미메시스적 능력이다. 그러면 벤야민이 이릅니다. 원래 인간은 자연의 모든 것을 본 게 아니라 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조개더미를 보고 운명을 읽으려고 그랬고, 동물의 내장을 보고 그 내장과 전혀 관계없는 뭘 읽으려고 그랬고, 태고 인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게 구슬 던져 놓고, 그거 보고 뭘 읽으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벤야민이 볼 때는 벤야민이 점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점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억의 문제하고, 얘기를 우리 역사철학 테제에 거기에 보면 점술가가 운명을 읽어내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특별한 기억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속에서 바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벤야민이 볼 때 바로 우리의 시각행위는 원래부터 짐승의 내장을 보고 운명을 읽어 내고, 뭘 읽어 내고, 그리고 점술가들이 하듯이 뭘 주사위 던져가지고 또 뭘 읽어내고 이런 식으로 원래 비지각적인 그런 유사성을 읽어내는 능력이 원래 있었다, 라는 거죠. 그게 타고난 독서 능력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전범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점성술이다.

별자리 읽기. 그래서 하늘의 그 두서없이 떠 있는 그런 그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보통 태어날 어떤 아이의 그런 운명을 읽어 내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운명을 그 별자리에서 읽어 내려고 했을 때 벤야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하늘에 두서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별들 하고, 그리고 인간의 태어나는 아이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지각적 유사성이 있냐?

그 무엇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런 유사성의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인간의 특별한 미메시스적 능력은 그 둘 사이에서 모종의 관계성을 바로 형성해내는 특별한 능력,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적 능력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벤야민이 나중에 가면 constel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역사철학 테제를 읽으면서 constellation 얘기를 나중에 제가 좀 복잡하니까 따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의 인식 방법론에 별자리의 그런 constellation이 원래 별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constellation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얘기되고 있는 독특한 인식적 방법론이 벤야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그런 시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건 나중에 현대성 문제, 도시철학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벤야민이 이 점성술을 이제 얘기를 들면서 하늘의 별, 아무런 무의도적으로 떠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그 별자리하고, 바로 그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운명을 연결시켜서 그거를 아주 긴밀한 그런 필연적인 그런 관계로 읽어 내려고 했던 그런 점성술, 이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지각적인 그런 유사성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비지각적 유사성이 가장 활동적으로 존재하는 언어행위-구어(의성어)

그러나 이제 그 벤야민이 볼 때 이 비지각적 유사성이든, 아니면 지각적 유사성이든 이것이 어떤 시각적 현상에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바로 비지각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활동적으로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언어행위다. 그래서 언어는 미메시스적 능력의 보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언어를 벤야민은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어와 그리고 문어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위 포네틱컬한 phonetics, 음성언어학하고 그 다음에 문자언어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자언어를 보게 되면 벤야민이 얘기하기를 바로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유사성의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의성어 같은 걸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언어 행위 속에 의성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간다. 또는 닭 울음소리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닭 내는 소리하고 독일에서는 이상하게 내요, 따라하지도 못해요. 여기서 끊어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우리는 ‘꼬꼬댁 댁댁’하지만 좌우지간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의성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발음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현상을 유사성 관계로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벤야민에게 그리고 뭐 우리 엄마라고 하는 무슨 단어 같은 것들도 공유에서 다 ‘M’자, 입을 그냥 열었다가 붙이는 단순행위 이것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음성들이 대체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럼 바로 인간의 언어 행위 속에 이런 의성어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미메시스적인 능력의 보고로서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 문어체 속에서 발현되는 미메시스

그러나 사실 벤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어체입니다. 즉 쓰여진 글 속에도 바로 이런 유사성을 창출해내고 있는 인간의 미메시스적 능력이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씌여진 그런 글이라고 하는 건 뭘니까? 다름 아닌 이 기호로 언어화된 거잖아요? 음성적인 언어라는 건 뭘니까? 이거는 이미 자연의 산물인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기호라고 하는 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연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파벳뿐 아닙니까? 이렇게 피라미트처럼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반쯤 고부라진 거 합해가지고 무슨 단어 만들자, 그게 뭐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러면 동그라미하고 이거하고 붙여가지고 이게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기호, 알파벳의 조합일 뿐이지. 근데 벤야민이 읽어 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무성한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인간의 미메시스적 능력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상태인 바로 그것 속에 문어체 속에 바로 가장 직접적인 그런 유사성이 그 안에서 바로 발현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로 바로 벤야민이 성서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 다는 것,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 읽는다는 행위가 결국은 무엇이나 하면 바로 결코 닮을 수 없는 단순한 기호인 그런 문자들 속에서 그 문자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소위 혼의 문제를 신의 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그 사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추상적 거리를 그 유사성에 밀접한 어떤 관계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미메시스적 능력의 한 행위가 다름 아닌 성서 읽기다.

그래서 소위 독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소위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읽기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그거겠죠. 텍스트의 외부층위, 기호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자층위하고는 다른 것이 그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인데, 그 둘 사이를 바로 매치시켜서 읽어내는 그것이 바로 독서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학문적 전통이 되고 있는 그런 해석학의 원리인데 이 해석학의 원리는 원래 성서 읽기에서 나온 거죠.

성서학자들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속에서 그 문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의 음성을 그 안에서 읽어 내려고 하는 그 해석 행위라고 하는 것이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유사성을 둘 사이에 유사성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문자층위 속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그런 읽기보다는 벤야민이 크게 영향 받고 있는 카발라나 아니면 토라나 이런 식의 유대 그 랍비들의 그런 그 성서 해석, 그것이 바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3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필적학과 미메시스

그 다음에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성서 읽기와 마찬가지로 ‘필적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필적학, 요즘은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벤야민이 Physiognomic이라고 얘기하는 관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어떤 독서 행위인데요, 우리 관상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보고 운명을 읽어내려고 하죠. 그렇죠? 얼굴 보고, 생김 거 보고, 이제, 읽어내려고 하는데 바로 벤야민에게 이 그 미메시스적 능력과 관상학적 능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벤야민이 파리를 응시할 때, 그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상학적으로 본다, Physiognomic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그런 뭐냐 하면 그런 해석 행위입니다. 즉 어떤 그런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의존해서 그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독서 행위가 바로 이 관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벤야민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필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컴퓨터가 없을 때는 사실 다 그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 글씨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얼마 전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게 되면... 제가 글씨를 묘하게 쓰니까 제 글씨 보면 사람들이 좀 성질 더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그런 것처럼 칼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부드럽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참 교육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아까 장난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들 글씨 똑바로 써라, 또박 또박 써라, 그리고 점수도 안주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게 그런 것도 아주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 시스템이예요.

글씨를 쓰면서 거기에 사실은 이게 바로 표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표현, Expression, 우리의 감정이 얼굴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예전대... 그리고 참을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목소리가 고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선보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말이 통명스러워지고 이것 다 표현이예요. 표현, 표현이거든요.

거기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글씨에 나타난다. 우리가 뭐를 쓰는 게 그냥 어떤 문장을 쓸 때, 그 문장만 쓰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프루스트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방안에 대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필체가 달라진다. 대기가,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대기가 방안에 좀 달라져가지고 이 글 쓰는 필적이 달라지고 거기에 달라지는 걸 보고, 결국은 뭐냐 하면 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옛날에는 바로 그 필적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읽어내고, 운명을 읽어내려고 했

있던 것, 뭐 우리 서예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서예. 그래서 서예가 도냐, 예냐, 싸우는 게 바로 그거죠.

도라고 할 때 그 안에 바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성이 그 서예, 글씨 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글씨냐, 아니면 예냐, 그건 정신성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그 the beauty,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서구에도 옛날에 성서 읽기의 두 가지 경향이 있었죠.

리얼리즘하고, 노미널리즘(Nominalism)하고. 리얼리즘, 바로 그 혼을 직접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서 읽기하고, 또는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명목론이다, 해서 단순히 그 단어들에 어떤 그런 관계로만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서예에서 이문열의 <금시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잘 알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도道냐, 예禮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싸우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표현이냐, 아니면 단순한 그야말로 묘사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필적학, 그게 필적학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글씨를 통해서 단순히 그 글씨의 내용을 읽고, 글씨의 모양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글씨를 통해서 그 글씨와는 아무 관계가 실제로 사실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성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유사성 관계를 통해서 읽어내려고 했던 하나의 학문적 그런 영역,

그게 필적학이라면 그 필적학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이 바로 미메시스적 유사성의 능력을 통해가지고 서로 이질적인 것을 만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관계로 계속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그런 신세대들 컴퓨터가 태어난 이후 글쓰기 자체를 컴퓨터를 갖고 시작을 하신 분들하고, 우리처럼 공책에다가 만년필로 쓰고 그러면서 글쓰기를 배운 사람들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컨대 소설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도 본질적인 차이도 발견되는 그런 시선을 갖고 한번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읽어 보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몇 분들은 컴퓨터를 갖고 글쓰기를 배우셨을 것 같아. 그럼으로 해가지고 소위 필적하고, 자기 필적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자기가 글로 쓴 자기가 손으로 종이와 손과 머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직접쓰기인데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글쓰기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담길 수 있는가?

혹은 바로 그것이 없어지고 컴퓨터라고 하는 그냥 때리기의 관계로 감으로 해가지고 바로 무엇이 상실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면, 그러나 이건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으니까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컴퓨터로 씬으로 해가지고 바로 필적으로 썼을 때는 있을 수 없던 어떤 것들이 바로 컴퓨터를 씬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것이 동시에 생산될 수 있는가, 공임으로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어느 쪽에 입지를 갖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 자체, 우리의 문화적 행위 자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그 문화적 패러다임, 그 자체를 아주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통찰해보는 그런 입장을 양쪽에서 다 갖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재미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상호관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호적 언어 행위에 담긴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시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참 묘한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가 글을 쓰다가 글이 안 써지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를 대충 갖고 쓰는데 잘 나가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딱 중단이 되어버리면 안 나가죠. 이어지지를 않는 거죠. 글쓰기는 결국 이어지는 건데 음악이죠. 사실, 이어지는 건데 이게 한 번 딱 멈춰서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안돌거든요. 죽어도 안돌아. 아무리 끽끽거리고 그 앞에 앉아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배를 깔고 그리고 방바닥에 눕습니다.

종이를 앞에 놓고, 끽 끽 거리고 있으면 참으로 회한하게도 그렇게 끽끽 묶여 있던 그게 뭐가 진짜 짝 풀리면서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이렇게 풀리리라고는 도저히 뭐라 그럴까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글이 풀려 나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 거 해보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뭐가 안 되면 배를 깔고 눕습니다. 방에다가.... 그러면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것을 사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글쓰기와 신체와의 관계, 그리고 글과 그리고 말하자면 소위 접촉이 있는 글쓰기하고, 접촉이 사라진 그런 글쓰기 차이와 많이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머리로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몸의 응원을 받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뭘 막 써 놓고, 종이에다가 불펜 같은 걸로 막 써 놓고, 공책 같은 것을 딱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옮겨 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철이 뒤편에 박혀 있죠. 오тол도톨하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눌러 쓰는 편이라서..., 요새는 펜들도 하도 좋아져가지고 눌러지를 않죠? 그렇죠? 눌러지를 않아. 그냥 매끄럽게 살살살살 나가기 때문에 뒤집어 봐도 눌림이 없어요. 요철이 없어요. 요철. 옛날엔 볼

펜도 모나미 볼펜 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묘합니다. 앞에서 읽은 것 하고요. 내가 쓴 글이잖아요? 앞에서 읽은 것하고 우연스럽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글씨가 읽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지로 읽힙니다. 이미지로, 이게 오토도토했던 것들이... 그게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가 생기기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읽히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데 무엇을 읽느냐 하면 아, 내가 글을 쓸 때, 단순히 의미관계로만 써 놓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글속에는 이 요철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아마 벤야민이 텍스트를 이중구조로 보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관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글을 쓸 때 나는 어떤 목적이 있고, 아, 나는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내용을 막 써서, 그리고 그것만을 읽으면 아, 내용을 제대로 전달 했구나, 전달 못 했구나, 이것만 보이고 말텐데 뒤집으면 그 인포메이션의 그런 그 내용 속에 인포메이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롤랑 바르트하고 벤야민의 논리인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언술행위가 없으면 그것도 따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벤야민이 모든 대상을 보려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바로 그 인포메이션적인 글쓰기는 바로 표현적 글쓰기를 밀어내는 글쓰기 형식이에요. 밀어내는 글쓰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호적 언어 행위는 소위 그런 그 아담의 언어적 그런 행위를 밀어내고 타락시키는 그런 언어 행위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님 이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기호적 언어행위가 없으면 바로 그 언어적, 이름 언어적인 언술 행위도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어내고 있는 그것이 다른 아님 그것을 불러들이는 걸로 얘기가 돼요. 자꾸 물어 봐야 돼. 이게 좀 감이 잡히시는지? 그래서 타락사가 다른 아님 복구사다.

그것은 밀어내는 행위가 불러들이는 행위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적 그런 시선인데요. 바로 그런 행위가 우리가 필적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글을 막 쓰게 되면 분명히 나는 글쓰기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즉 코드, 롤랑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코드에 충실해가지고 그 코드의 의미생산 구조를 따라서 글을 쓰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바로 탈코드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흔적들이 그 뒷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드를 따라가는 행위가 바로 탈코드화 된 어떤 것들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벤야민이 필적학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런 것들이, 징후들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아쉬움으로도 표현

하지만 그러나 역시 벤야민의 알레고리커로서의 시선답게 그 사라져가는 과정을 바로 그것이 다시 복원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글쓰기에 아니면 글쓰기 문화의 그런 변화를 바로 필적학적 글쓰기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다시 물어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컴퓨터를 통한 이 글쓰기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필적학 속에서 있었던 그것들을 단순히 몰아내고 그것을 폐기시키는 그런 글쓰기에 지나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난감한 것은 그게 문제인데요, 내가 손으로 글쓰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읽을 수 있는 뒤판이 있는데 출력을 해 놓으면 뒤에 그게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읽어야 되죠?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도전의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의 전제는 글쓰기를 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글쓰기 속에 내재하게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내재하지 않으면 바로 정보매이션을 위한 의도적인 글쓰기 자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벤야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를 따르면 출력된 어떤 이러한 아무런 글쓰기의 손의 흔적이 남지 않은 이런 텍스트 속에서도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벤야민이 아마 컴퓨터 시대에 지금 있었다면 읽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안에도 바로 사라질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 오히려 더 강화해서 얘기했을 거 같아요. 옛날에는 뒤로 숨어서 남았는데 이제는 아예 안으로 들어와서 남는다,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읽으면 도대체 뭘 읽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주 난감한 그런 도전에 우리가 독서의 그런 도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단순히 벤야민의 어떤 독서를 재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만일 이것을 현재화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현재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책읽기를 아니면 텍스트 읽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사실은 부여받는 그런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미메시스적인 그러한 유사성을 창출하는 능력과 독서행위와의 이런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벤야민이 독서라는 범주를 더 넓혀서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행위에서조차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벤야민이 응시하고, 읽으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학적으로 선물로 주어져 있다고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미메시스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읽어질 수 있는 바로 소외된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 혹은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은 채로 쓰여지지 않은 채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과의 만남, 이게 바로 독서의 체험이다.

독서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랑 바르트 얘기를 좀 더 해야 좀 더 분명하게 벤야민이 저런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적어도 마치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 마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왜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어가지고 바로 그 롤랑 바르트 얘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미메시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문예이론 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